닭·오리 유통경로 복잡…AI 확산 못막아

추적시스템 구축 급하다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차단방역과 살처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AI바이러스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오리·닭 등 가금류 가축의 이동을 파악할 수 있는 유통경로 추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축산업계에 따르면 오리·닭은 일반 트럭에 간단한 시설만 하면 500마리 정도를 가볍게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소나 돼지 등과 같은 덩치 큰 가축과 달리 소규모 유통업체나 영세 유통업자가 많아 유통과정이 복잡하다는 것.

이들 영세 유통업자들은 대부분 3~4곳의 주거래 농장을 통해 오리·닭을 공급받은 뒤, 이를 수십 개의 소규모 유통업체에 재공급하거나 대형 음식점(농장을 갖춘 교외의 가든음식점)에 납품하고 있다.

특히 영세 유통업자로부터 100여 마리 정도의 오리·닭을 공급받은 소규모 유통업체들은 또 다시 다른 업소에 수십 마리 정도를 되파는 경우가 많아 유통 과정이 복잡하다.

전남도내에서도 영세유통업자들이 상당수 활동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허가나 등록이 필요없기 때문에 현황 파악 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최근 AI가 발생한 익산에서 감염이 우려되는 닭을 화순에 공급한 유통업자 박모씨도 익산이나 김제의 농장에서 오리·닭을 구입해 전북과 전남지역, 충남지역의 음식점 등에 공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손쉽고 복잡한 유통 구조상 AI가 발생할 경우, 발생지 의심 닭이나 오리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가 불가능해 자칫 대형 감염 사태를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축산 전문가들은 오리·닭과 같이 다른 가축에 비해 유통이 쉽고, 감염 및 전파 속도가 빠른 가금류 가축에 대해서는 유통 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영세 유통업자들은 행정기관의 허가나 등록이 필요없기 때문에 파악 조차 할 수 없다"면서 "이 때문에 이들이 감염 우려가 있는 닭을 유통시키더라도 추적이 어렵고, 차단은 더욱 어려운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발길 뚝 끊긴 식당가 "우리가 살리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AI) 공포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오리, 닭 소비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16일 광주시 북구 유동 속칭 '오리탕 골목'의 식당이 손님이 끊기면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왼쪽)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 임직원들이 16일 낮 지역본부 구내식당에서 닭 소비 촉진을 위해 닭고기·계란요리 등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위직량·최현배 기자 jrwi@kwangju.co.kr

나운찬

AI 언제 덮칠까 전전긍긍 닭·오리 출하 못하고 한숨

살처분 인접 지역 농가들 고통의 나날

"코앞에서 발병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언제 농장을 덮칠지 모르는 데다, 방역에 들어가는 약값은 날마다 늘어가고 답답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16일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 육용 닭 13만 마리를 기르고 있는 김모(57)씨는 부화 된 지 20일이 지난 영계 7만 수의 식수에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었다.

김씨는 자신의 농장과 불과 7㎞ 정도 떨어진 신북면 양계농장에서 지난 12일 고병원성AI가 최종 확인됨에 따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체 방역에 힘을 쏟고 있다. 농장과 인접한 집에 들어가지 못한채 밤을 지샌지도 벌써 닷새째다.

AI 발병이 확인된 이후 영암과 나주지역 닭·오리 농가들의 폐사 신고가 잇따르면서 살처분 반경 3㎞ 밖의 농가들도 추가로 AI가 발병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이들 농가들은 항생제를 투여하고, 매일 농장 주변을 소독하는 등 자체 방역비용을 감당하고 있지만, AI 발생지역 인근에서 키운 닭과 오리를 납품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을까봐 하루하루를 걱정으로 보내고 있다.

김씨는 "병아리 10만여 마리를 받아 45일간 키우는 비용이 1천5백여 만원이 들지만, AI 발생 이후에만 항생제와 소독약값으로 150여만원이 추가로 들었다"며 "어렵게 닭을 키우더라도 과연 납품을 받아 줄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그는 또 "20병 들이 항생제 1박스에 80여만원이 넘고, 소독약도 좋은 것은 2ℓ에 40만원을 넘을 정도로 고가"라며 "AI 발생 전에는 군에서 소독약을 지원해 주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이마저도 끊긴 상태로 살처분 반경 바깥 농가들의 지원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영암군 신북면과 맞닿은 나주시 반남면 닭·오리 농가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오후 찾은 청송리 이모(62)씨의 오리 농장 입구도로는 차량과 장애물로 막혀있었다.

이씨는 "AI 통제범위를 발생농가 10㎞ 반경까지 넓히면서 다 큰 오리를 출하할 수도 없고, 납품업체들도 연락이 두절된 지 오래됐다"며 "AI 사태가 끝나더라도 과연 오리를 사려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럴 바엔 차라리 살처분 보상을 받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푸념했다.

인근에서 닭 3만2천 수를 키우고 있는 최모(62)씨도 "5년 전 AI 발병했을 때도 살처분 된 농가만 보상이 이뤄지고, 주변 농가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었다"며 "멀쩡한 오리도 납품하지 못하는 농가들의 마음을 헤아려 오리 소비가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수요일은 닭·오리 먹는 날"

농협·지자체 소비촉진 운동 확산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닭·오리고기·계란의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농협과 광주·전남 일선 지자체 등 각계에서 소비 촉진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는 '매주 수요일은 닭·오리고기·계란 먹는 날'로 지정한데 이어 16일 지역본부 구내식당에서 전 직원들이 닭고기와 계란 등으로 점심식사를 했다.

이덕수 농협전남본부장은 "닭·오리음식의 경우 75도에서 5분 이상 가열하면 AI바이러스가 사멸하기 때문에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다"면서 "축산농가에 힘과 용기를 북돋워주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시·도민들이 닭과 오리고기를 많이 먹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AI 발생으로 광주시 북구청 관내 오리 음식점들이 직격탄을 맞자 북구청이 소비촉진 운동에 나섰다. 북구청은 이날 북구 유동 '오리탕 골목'에서 송광운 북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직원 20여명이 오리고기의 안정성을 홍보하고 소비 촉진 운동을 벌였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직원들이 우선 오리탕 골목에서 시식행사를 갖은 뒤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할 계획"이라며 "이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함평군도 닭·오리의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양축농가를 돕고 안전성을 알려 소비촉진을 위해 이날 낮 전 직원이 구내식당에서 닭·오리 고기로 식사를 했다.

/이종태·이종행기자 jtlee@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AI 감염되면 최대 20억 보상

농협, 배상보험 가입

농협은 16일 양계·계육·오리협회 등 가금업계와 함께 NH보험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 보험을 통해 소비자는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도계장에서 생산, 유통되는 닭·오리고기를 먹고 AI에 걸릴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은 4월 15일부터 내년 4월 14일까지 1년이다.

농협측은 "소비자의 막연한 불안을 덜고 닭·오리고기의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은 지난 2004년, 2005년, 2006년에도 AI 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연합뉴스

최홍만 380㎜ 전투화 특별 제작

쌍나팔

○…육군은 이종격투기 K-1의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28·사진)의 입대를 앞두고 규격에 맞는 것이 없어 골머리를 앓았던 전투화와 전투모, 전투복을 특별 제작키로 결정.

○…육군은 16일 발 길이 370㎜인 최홍만을 위해 380mm 길이의 전투화(군화)와 머리둘레 68㎝의 전투모를 특별 제작하는 한편, 전투복과 속옷도 별도로 제작하겠다고 발표.

○…최홍만은 21일 강원도 육군 제36보병사단 신병훈련소에 입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공익근무를 하게되는 데, 국군 창군 이래 최대 발 길이는 최홍만 이전까지 330mm가 최고.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